

한은, 기준금리 0.75% 동결...내달 올릴 듯

올해 성장률 4% 수준...물가 당분간 2%대 중반 전망 이주열 총재 “경기 흐름 예상대로면 11월 인상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진단한 만큼, 다음 달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석유류 제외)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종합적으로 통화정책 방

향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시장 불안에 동결로 ‘숨고르기’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0.5%)까지 낮췄다가 지난 8월26일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 올렸다.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진 데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을 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안과 변동성이 매우 커진 증시 등을 고려해 일단 다음 달 회의까지 추가 인상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한달 미뤄졌을 뿐 11월에는 결국 금통위가 다시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비롯한 이른바 ‘금융 불균형’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회의(11월)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상보다 강한 물가 상승세를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등의 금융 불균형 누적 문제도 다시 거론했다.

이 총재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실질 기준금리, 금융상환지수 등 지표로 본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 정책 효과가 가시화 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화정책도 대응할 뿐 아니라 금융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건전성 정책(대출 규제 등)이나 주택 정책 등도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 농촌공간계획 온라인 전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는 2021년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 수상작을 13일부터 온라인 전시하고 15일에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건축대전과 농촌계획대전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어촌공사와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계획학회 주관, 농촌진흥청 후원으로 2021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다.

수상 작품은 13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 76점의 패널과 모형작품을 VR(가상현실) 이미지로 관람이 가능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전시된다. /기수회기자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역대 최대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도 나라장터 엑스포에 444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 행사에서는 공공구매상담회를 대폭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적극 지원, 공공시장 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번 엑스포 기간 진행된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1월에 “2021 온라인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나라장터 엑스포가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박람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9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대금 확 줄었다

상장기업 시총 7천억 증발...美 경제회복 둔화 등 변동성 영향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9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코스피·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거래량은 8억4천958만주로, 전월 대비 10.75%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9조3

천911억원으로 전월 대비 25.40% 줄었다.

전체 상장기업 시총액은 전월 대비 7천724억원(-2.98%) 감소했다.

코스피는 1.51% 감소한 3천322억원, 코스닥은 무려 11.35%가 폭락해 4천42억원이 증발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이나믹디자인(-94억원, -10.07%)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금호타이어(-1천149억원, -6.7%), 광주신세계(-200억원, -6.02%) 등도 일제히 감소했다.

한국전력은 -1.88%로 시총이 2천899억원 줄었다.

한전과 금호타이어 시총 감소액만 합해도 4천48억원에 달했다.

시총이 늘어난 종목은 DSR제강(+393억원, +41.24%), 대우에이텍(+536억원, +37.21%), 대우플러스(+199억원, +11.91%) 등 5곳에 그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한그린파워(-1천101억원, -35.09%), 피피아이(-120억원, -23.24%), 대신정보통신(-219억원, -23.17%) 등 전체 19개 종목에서 15개 종목의 시총이 줄었다.

서양기계공업(+32억원, +4.23%), 우리온에프엔지(+48억원, +2.91%), 파루(+4억원, +0.88%) 등 3곳만 늘었다.

전국 시총은 코스피가 76조8천927억원(-3.33%), 코스닥은 12조4천294억원(-2.87%) 등 모두 89조3천221억

원(-3.26%)이 증발했다.

시총만을 놓고 볼 때 코스피는 선전했으나 코스닥은 폭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대금 기준 카카오,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을 중심으로 거래했고 코스닥에서는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등을 중심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측은 “미국 경제 회복 둔화와 중국 헝가리 부도 위기, 미 국제금리 제고 등 및 연방정부 부채한도 도달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며 하락 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수회기자

중소 92% “인력난 심각...외국인근로자 입국 늘려야”

국내 대다수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9일 외

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729곳(92.1%)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또 515곳(65.0%)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인력 수요가 커졌으며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할당량)를 현행 연 4만명에서 1만명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업체 551곳(69.6%)은 이 조치로 인력 문제에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755곳(95.3%)은 내년에 추가적인 체류 기간 연장 조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때의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국을 허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 국가를 현재 6곳에서 16개 송출국 전체로 확대하고 입국 인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사원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책임 A/S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형갈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